

7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23.7.27.(목) 오후 3시, 12층 대회의실

참석 위원 : 안호림 부위원장, 허인순, 김희중, 서신석, 진한수, 안성희,
이상헌, 이성우 위원 8인(손영준 위원장, 강건기 위원 서면 제출)

회사 참석 인원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시청자센터 부장

■ 주요 내용

▲ 안호림 부위원장

- 성원이 되었습니다. 7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원님들 의견 발표 순서를 역순으로 진행해볼까 합니다. 이성우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이성우 위원

- 25~49세 남성 절반 미혼...혼외자 출생 7,700명(7.11), 7월 11일은 1987년 7월 11일 전 세계 인구가 50억 명이 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UNDP(국제연합개발계획)가 1989년에 제정한 '세계 인구의 날'에서 유래된 기념일입니다. 이날 통계청은 기존의 통계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저출산과 우리사회의 변화 -일가정 양립과 외국인 현황 중심으로 조망-이라는 자료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81명으로 OECD 회원국 간 합계 출산율 비교 시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 감소, 육아휴직의 증가, 그리고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를 우리나라 국민으로 수용하는 정도 등 다양한 포커스에 맞춘 이슈들이 다루어졌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특히 '혼인이 줄어들면서 출생아 수도 감소'라는 포인트에 많이 주목한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TV는 이날 오후 9시경 '25~49세 남성 절반 미혼...혼외자 출생 7,700명' 제목의 뉴스와 11시경 '저출산에 우리나라 인구 2070년에는 3,800만 명' 제목의 뉴스를 연달아 보도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면, 바로 9시경 뉴스의 제목에서 보인 '미혼 남성의 비율'과 '혼외자 출생아 수'라는 두 키워드 조합이 자칫 자극적이면서도 차별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입니다. 미혼 통계 수치에 대해 '25~49세 남성 47%·여성 33% 미혼' 혹은 '독신남녀'처럼 두 성별의 미혼 수치를 함께 언급하는 보도가 많았고, 미혼 남성의 비율이 미혼 여성보다 훨씬 높기에 이를 강조하려고 미혼 남성의 비율만 표출한 보도도 더러 있어 이 부분까지는 그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혼 남성 비율에 뒤따라온 키워드가 혼외자 출생 수치였다 보니 연합뉴스TV의 뉴스 제목만 봤을 때는 자칫 미혼 남성의 비율 증가가 혼외자 출생에 영향을 주는 것 같은 생각이 연상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뉴스는 각 키워드를 따로 설명하는 무난한 내용이었다 보니 제목 선정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더욱이 황당했던 것은 이 제목이 연합뉴스TV의 단독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날 아침 모 언론사 한 군데에서 보도된 기사 제목과 똑같아 '이걸 그대로 차용한 건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 제목을 잘 뽑아내기가 무척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뉴스의 제목은 보도전문 언론으로서의 신임도를 고려할 때 조금 큰 욕에 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별 구분이 이루어지는 내용

의 표현은 민감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그마한 실수에도 시청자는 성차별적인 느낌을 받거나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며, 언제나 연합뉴스TV의 보도 전문성을 잘 견지할 수 있도록 건승을 기원합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엠바고가 달려 있는 보도자료였습니다. 타매체와 제목이 비슷하다면 아마 우연일 겁니다. 제목에 있어서 팩트 두 개를 땡땡땡(...)으로 나열하는 문제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은 해당 기사的重要한 팩트를 가급적이면 1개가 아니라 2개 노출시키려는 의욕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팩트들을 땡땡땡으로 열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땡땡땡으로 팩트 두 개를 나열을 하더라도 전혀 연관성이 연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개의 팩트 두 개를 담았구나 생각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남성 절반 미혼과 혼외자 수가 연계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 안호림 부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언뜻 보니까 약간 그렇게 오해를 할 만한 소지가 있네요.

▲ 이상헌 위원

- 7월 7일자 뉴스워치, '새마을금고 영향 코스피 1% 하락... '7만 전자' 붕괴. 보도에서는 당일 코스피, 코스닥 하락 장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하락 원인을 美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 새마을금고 사태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영향으로 봤고, 특히 삼성전자의 급감한 영업이익 발표로 주가하락이 지수하락을 불러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시기가 새마을금고 부실 위기로 불안감이 고조되던 상황이었고, 정부도 뱅크런 차단을 위해 연일 예금자보호 대책을 언급하던 시기인 점을 감안하면 메인 자막을 새마을금고 사태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보기에 따라서는 삼성전자도 7만 원대가 붕괴된 것처럼 여겨지도록 내보낸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새마을금고로 인한 불안감을 증폭시킬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위원 분들도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자막이 주는 메시지가 시청자들에게 자칫 과도한 불안감이나 왜곡된 정보 전달로 연결되지 않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고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장마로 인한 비 피해가 많았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뉴스 보도를 통해서 위험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피해 상황을 파악하게 되는데, 타 방송채널에서 수어방송이 되는 것을 보고 연합뉴스TV를 비교해보니 수어방송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농아인들이 40만 명가량 된다고 하는데, 뉴스를 보면서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도 알기 어려운 건 아닌지 우려가 됐고요. 일전에 수어방송에 대한 논의도 잠깐 있었습니다만, 갑작스런 재난방송과 매년 여름마다 발생하는 비 피해 방송은 좀 달리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 피해는 7~8월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사전계획을 통해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새마을금고 보도는 초기부터 잘못하면뱅크런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도국에뱅크런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계속 당부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부의 대책을 많이 보도를 하고,뱅크런에 가세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는 보도도 했습니다. 그런 것과는 별개로 새마을금고 사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뱅크런 부추김 우려 때문에 아예 보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이번 증시 자막 같은 경우는 당시 새마을금고가 자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보유 주식 지분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 물량이 나와서 증시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유 채권도 팔다 보니까 금리에도 영향을 줘서 역시 간접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주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보시면 저희가 불안 심리를 조장했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과는 별도로 저희가 정부 대책도 많이 보도하고뱅크런 불안 심리 때문에 가담하지 않도록 시청자들에게 당부하는 성격의 보도도 많이 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저희가 평일과 주말에 계속 일부 수어방송을 하고 있고요. 수어방송 의무 편성 비율 7%를 넘겨서 저희가 8.4%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내용대로 수해나 재난 상황에서는 수어 방송을 조금 더 늘려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만 비용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수해나 재난 상황 보도 시 조금이라도 수어방송을 늘리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 안성희 위원

- 3년여 새 무인 편의점 17배...최저임금 인상 시 더 늘 듯 (7/14), 7.19(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1만 원'을 넘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였고 '역대 최장기간 심의'였기에 매년 갈등과 파행으로 치달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당 뉴스는 7.14. 보도된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한참 노사 간 의견을 좁히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고 7.18. 절충이 예정된 시기였는데, (최저임금과 관련된 편의점 등 소상공인의 상황 등을 보도하는 것은 필요하기도 하고 의미가 있으며 비단 연합뉴스TV만 유사한 보도를 한 것은 아니더라도) 뉴스 제목에서부터 '최저임금 인상 시 더 늘 듯'이라는 문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출근길 인터뷰] "그냥 쉰다" 4050보다 많다...2030에게 무슨 일이? (7/20), 2030의 쉬었음 인구가 4050보다 많다는 최근 고용동향과 관련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시의 적절하게 진행된 인터뷰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청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통계 수치나 그래프 등이 화면에 제시되지 않아 아쉬웠고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화면에 「인기 직종은 '구직난' 기피 직종은 '구인난'...대책은?」이라고 제시된 후에 (인터뷰 내용에는 간략하게 언급되었으나) 대책에 대한 화면 제시 없이 바로 마무리되어 결론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남겨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전문가의 의견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후속 보도 등도 기대해 봅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며칠 전에 이런 리포트가 나갔는데요. 이 리포트는 제목에는 최저임금이 거론이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최저임금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리포트는 아닙니다. 편의점 업계의 추세를 소개해주는 리포트인데요. 저는 이 같은 경우는 경제부의 담당 기자와 데스크가 좀 더 면밀히 판단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저임

금 관련해서는 노동계와 재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 사안인데 결정을 며칠 남겨놓은 상황에서 편의점 업계 기사를 다루면서 거기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안 된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긴다면 일방적이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이 늘어나면 편의점 업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면, 이걸 기자의 목소리로 할 것이 아니라 편의점업계의 인터뷰 정도로 처리했더라면 그런 오해는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경제부에서 만약에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리포트를 그 시점에 했다면 이렇게 한쪽의 얘기만 일방적으로 전달하지는 않았겠죠.

- 사실 방송에서 경제는 좀 다루기 어려운 아이템이거든요. 한번 들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 관련 내용을 다룰 때는 시청자들이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시각적인 보완 장치를 뒤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뉴스 총괄부의 설명은 3분 정도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인터뷰이 얼굴이 계속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픽으로 처리 못했다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분30초 짜리 리포트에도 그래픽 얼마든지 집어넣습니다. 출근길 인터뷰에도 작가도 있고 할 텐데 좀 성의가 좀 모자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책을...이라는 자막이 들어가 있는데 정작 대책에 대한 인터뷰이의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원래 그 얘기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인터뷰이가 다른 말을 길게 하다가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하지 못했을 가능성, 아니면 인터뷰이가 어떤 얘기를 할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막을 일방적으로 달았을 가능성입니다. 둘 중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국 제작진의 준비와 뉴스진행팀의 대처가 좀 부족했다고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진한수 위원

'공공 돌봄' 위축 우려..."미혼모 지원도 늘려야", 해당 보도는, "지자체 곳곳에서 공공 돌봄 예산이 축소되면서 학부모들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영아 유기 사건 등을 막기 위해 미혼모 지원 등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자료화면에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한다는 설명과 함께 한 어린이집을 비추고, 해당 기자는 "다양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에 아이를 믿고 맡긴다며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위 보도 내용만으로는 어떤 지자체에서 공공 돌봄 서비스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다가 어느 정도 규모로 축소된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축소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제공한다는 '다양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학부모들의 인터뷰도 없어 다소 아쉬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도가 추상적인 메시지만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서 이해를 돕는 설명이나 기사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등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인터뷰 내용 보도과정에서 취재원이 "서사원 어린이집이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료화면이 시작될 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하지만 자막에서 괄호 표시를 하여 서사원이 어떤 말을 줄인 것인지를 밝혔다면 시청자들에게 인터뷰 내용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덧붙여 영아 살해 문제로 인한 미혼모 돌봄 지원 필요하다는 내용의 경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함께 환기시키려는 보도취지에는 공감을 할 수 있으나, 자칫 공공 돌봄 서비스 예산 축소를 지적하는 보도 취지까지 흐리게 될 수 있어 분리하여 보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영아 살해'의 경우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는 것임에도 현재 문제되는 대부분의 사안은 영아살해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임에도 잘못 사용되고 있어서 용어 사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영아 살해를 막기 위해 미혼모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배경 설명이나 내용이 다소 충실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좀 더 성의 있게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 중에서 '서사원' 이렇게 줄인 말을 쓰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이렇게 자막으로 처리해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방법도 있고요. 본인들이 취재할 때 애초에 이게 쓸만한 대목이다 싶으면 영상을 다시 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뷰 현장에선 미처 어떤 대목이 리포트에 들어가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 강건기 위원(서면제출)

- 7.8 일자 토요일아이드에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면허 자진 반납이 효과가 없어 통일된 양식의 고령 운전자 스티커를 배부해 배려 운전을 유도한다는 보도는 좋았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자진 반납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통일된 고령 운전자 스티커 도입과 스티커 부착 고령 운전자가 운전 중이라는 것을 일반 운전자가 인지한다면 차량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은 적절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일반 운전자의 일방적 양보 운전 의무화가 아닌 고령 운전자 스스로 차량 운전 조건 등 고령 운전자 안전 수칙 필요성 등도 설명하거나 강조하였으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 7.4~7.7일까지 전 세계 19개국의 재외 한인과학자들이 참석하여 네트워킹하고 연구 성과를 교류하는 학술행사와 과학축제로 구성된 제1회 세계 한인과학기술인 대회 관련 뉴스를 7.6 일자 뉴스 1'윤대통령 "R&D 투자, 세계 최고수준 연구에 투입해야" 보도 외에는 거의 다루지 않은 것은 과학 관련 이슈에 관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스 보도 편성에서 과학 이슈나 과학 관련 큰 행사에 보다 관심을 두었으면 합니다.

- 7.9 뉴스1 '민주, IAEA 사무총장 면담....'양평 고속도로 책임 공방' 보도에서 IAEA 사무총장이 민주당을 방문하여 방한 목적과 활동 계획을 설명하는 방송에 이어 두 명의 전문가가 '뉴스 1번지' 데스크에 참석해서 진행자가 질문하는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하였는데, 원자력 관련 전문가의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팩트 체크 토론이 아닌 비전문가(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전 경기도 대변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전달, 주장하는 형식이어서 아쉬웠습니다. 원자력, 감염병, 특허 등 사회 이슈를 다룰 때는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팩트 체크 토론을 하면 좋겠습니다.

▲ 안호림 부위원장

강건기 위원님께서 행사 때문에 부득이 참석치 못했는데 사전에 서면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고령 운전자에 대해 우리가 약자 배려 차원에서 양보 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하긴 합니다만, 고령 운전자 스스로 주의운전 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측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세계 한인과학기술인 대회 뉴스 관련해서 대통령이 장소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는 저희가 다

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상당히 중요한 과학계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때 이제 수해라든가 이런 저런 날씨 관련 보도에 집중을 하는 바람에, 저희 기상 과학 기자 3명이 전부 그쪽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인원 상황을 감안하면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 내용을 직접 가서 취재하고 중요하게 다루지 못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IAEA 사무총장 민주당 면담 보도 이후에 정치 전문가들이 출연해서 이 문제를 얘기했다. 비전문가들이 왜 이런 걸 하느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일본 오염수의 방류 문제에 대해서 과학자들의 입장을 보도 안 했던 건 아니고요. IAEA 사무총장이 방한해 민주당 인사들과 면담을 했을 때는 발언 보시면 알겠지만 과학적인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 외교적인 얘기도 많고 해서 반드시 핵 전문가가 나와서 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서신석 위원

- 연합뉴스TV의 7월14일 [현장잇슈] 뉴스 "강남 그 물난리 뒤 .. 다시 가보니 " 이래도 버리실 거예요?" [좋은 보도구성] 장마철이 시작되고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작년의 강남구 물난리 사태를 상기시키며 그동안 조치 상태 확인과 공무원들의 대비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보도였다고 생각함.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하여 7월15일, 16일 충남 이남지역의 침수, 범람이 일어나 많은 이재민과 인명, 재산 등이 피해가 속출하고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 7월14일 연합뉴스 TV의 "현장잇슈"에서 작년 8월8일 강남구 일대는 시간당 116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로 많은 피해를 상기시키며 그동안 공무원들의 복구 및 대비 상태 점검과 빗물받이를 막는 쓰레기들과 낙엽, 토사물, 담배꽂초 등이 쌓였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도로의 침수 속도 및 상태 등을 직접 점검과 이채연 기자의 체험을 통해 보도해 줌으로써 시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보도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연합뉴스TV가 일회성 이슈보도에만 끝나지 않고 꾸준한 탐사보도를 통한 사건사고에 대한 대책마련 진행 상태와 꾸준한 관리 상태 등을 집중탐사 보도를 해줌으로써 시청자의 궁금증과 알아야 할 권리를 연합뉴스TV를 통하여 해결이 되어 시청자들의 사랑받는 채널이 되었으면 한다.

- 연합뉴스TV의 6월30일 [배달잇슈] '중독'에 '범죄노출'까지...미국 부모도 고민하는 이것 [청소년의 SNS중독에 경각심을 갖게 하는 좋은 보도] 10대들을 표적 삼는 온라인 공간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들에 대한 현실적인 규제가 필요한 시점으로 국외 사례와 플랫폼 회사들의 노력 등을 보도함으로써 국내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제도화를 통한 청소년들을 SNS 중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의 인식전환 계기 마련. "페이스북 모 회사 메타가 자사 소셜미디어에 부모의 자녀 SNS 감독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10대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 장치들을 도입한 건데요. 지난해 말 10대 자녀를 둔 미국 부모들이 SNS 플랫폼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한 이유이기도 하죠. 미 의회에선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소셜 미디어 가입을 할 수 있거나, 청소년 콘텐츠 추천 제한 같은 입법 움직임도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에서조차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선제적 조치를 나선 건데, 이런 SNS나 랜덤 채팅 앱의 어두운 현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일텐데요.". 보도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10대 청소년들의 '소셜 미디어 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미국, 캐나다, 영국의 해외의 사례를 들어가며 체계적으로 보도한 내용과 미 의회의 대처와 플랫폼 회사 메타의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 국내의 여가부의 실태 조사내용 상세 보도 등은 청소년을 둔 부모들에게는 SNS 중독성의 심각한 상황에 대한 정확히 이해

할 수 있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들에 대한 현실적인 규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의 결언 보도 또한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줌으로써 정부와 정치인, 학부모, 학생, 언론이 해야 할 일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도들이 지속적으로 보도되어 청소년들의 건전한 SNS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좋은 평가 감사합니다. 저희가 디지털 뉴스부가 인원도 많지 않고요 또 주로 젊은 기자들이 있습니다. ‘현장잇슈’라든가 ‘배달잇슈’는 젊은 기자들이 의욕을 갖고 만드는 새롭게 기획된 코너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격려해 주셨다는 얘기를 아마 이미 들었을 텐데요, 상당히 감사해 할 거고 또 많은 힘을 얻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희중 위원

기상이변이 일상화된 만큼 전통적인 일기예보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지난 15일 충북 오송읍 궁평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며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음. 사고는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장마로 4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인근 제방이 유실돼 불과 2~3분 만에 6만t의 물이 지하차도에 찻기 때문으로 알려짐. 뿐만 아니라 경북 예천 등에서는 산사태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음. 당시 전국적으로는 13일부터 16일 나흘간 충남, 충북, 경북 등에서 최고 570mm가 넘는 기록적인 '호우'가 내렸다고 연합뉴스TV에서 보도함. 사실 연합뉴스TV는 지난 13일, 뉴스12에서 '전국 장맛비, 중부 극한호우 가능성...중부지방 시간당 최고 80mm의 극한 호우 쏟아질 가능성 있다 첫 보도 이후 이날 저녁 8.28분 뉴스리뷰에서 충남과 전북에는 400mm의 물벼락이 쏟아질 전망이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다는 리포트를 전했다. 또한 다음날인 7.14일 아침 9시 뉴스투데이에서 발 빠르게 전문가(공하성 교수, 우석대)를 출연시켜 집중호우로 인한 △보행자 감전사고 △빗길 운전 △도로 포트홀 문제 △낙석과 산사태 사고 △계곡과 하천 야영사고 △통제되지 않은 지하도와 중간지점에 갇혔을 경우 같은 '상황별 대처 방법' 등을 확인해 시청자들이 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 연합뉴스TV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며 '시간당 강수량'과 '전체 누적 강수량'을 병행해 예보하거나, 집중호우로 인한 비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집중 점검해 보도한 것은 매우 적절한 재난 대비 보도라고 생각함.

다만, 지난 시청자위원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듯이, '시간당 80mm'나 '전체 강수량 400mm' 같은 '숫자 방식 예보'가 일반적인 시청자에게 와 닿지 않는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시청자가 숫자로 제공되는 강수량 정보 어디에도 '위험'을 감지하기 어렵기 때문임. 그런데 '시간당 80mm'라는 강수량이 얼마나 위험한 숫자인지는 3년 전 부산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나왔을 만큼 위험한 강수량임. 또한 10여 명의 사망자가 나온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는 사고 직전까지 누적 강수량이 390mm였던 만큼 400mm 강수량은 매우 치명적인 수치이기도 함. 그런데도 연합뉴스TV의 일기예보나 관련 리포트에서는 80mm와 400mm가 얼마나 위험한지 시청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단순히 조심해야 한다는 선에서 보도하는데 그친 것임. 우리는 지금 기상이변이 일상인 시대를 살고 있음. 이것은 과거의 방식으로 전하는 일기예보는 더 이상 시청자들에게 유효한 날씨 정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함.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경우 일기예보 시간을 특별 편성해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의 강수량 등을 자세히 예보하고, 집중호우 예상지역에 대한 위험정도를 나타내는 색도 지금의 파란색 계열에서 붉은색 계열을 전환해 시청자에게 강력하게 메

시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호우경보 등 집중호우가 예고된 일기예보의 경우 시청자들이 위험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리포트 시 '충격적 혹은 심각한 위험 표현'을 써서라도 사전 대비의 필요성을 인지시킬 필요도 있음.

따라서 앞으로 연합뉴스TV 일기예보에서는 폭우, 폭설, 태풍 같은 위험 정보는 과거의 보도 방식에서 벗어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자극적인 시청각 자료를 통해 시청자들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거나 대비하도록 보도해주길 희망해 봄.

▲ 추승호 보도본부장

기상과학팀에서는 시간당 몇 밀리미터 강수량의 의미를 담은 리포트를 두세번 만들어 방송했습니다. 그러나 비가 한 달 내렸잖아요. 두세번 리포트로 끝내서는 안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우의 강도가 위험한 경우는 단순히 시간당 몇 밀리미터 이렇게만 처리하지 말고 위험성을 시청자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해설 코멘트를 덧붙이도록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막의 색상을 위험성에 따라서 차별화하는 문제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상 이변이 일상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의 장마철과 비슷한 날씨 보도로는 안되겠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인순 위원

- 충청·남부 '호우경보'...내일까지 최대 250mm 더 온다 송고시간 2023-07-17 06:00:53 폭우 관련 보도 시청 중에 0:39분쯤에 카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내 카톡이 왔나 핸드폰을 확인을 했습니다. 잠깐 화면에 소가 똥똥 떠서 안타까운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걸 먼저 봤어요. 다보고 나서 제가 카톡을 확인했더니 이제 끝날 무렵 1분37초쯤에 또 카톡 알림음이 또 왔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컴퓨터에서 화면 이렇게 잘못 누르면 나오는 소리 그것도 방출이 되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저는 이게 현장에서 위급한 상황에 나가서 긴급 리포트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나 하고 또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기존에 어떤 다른 데서 보도된 다른 방송에서 보도된 자료들을 보도하면서 리포트를 해서 그런 실수를 좀 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썬속뉴스] 소아 중환자실 아기에게 "너무 귀여워"...간호사 목소리가 특별했던 이유 송고시간 2023-07-18 19:40:39, 요즘 비도 많이 오고 우울하고 그랬는데 썬속뉴스 보도를 보고 좋았습니다. 내용은 이제 정말 직업의식이 투철한 간호사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기 격려해주고 예쁘다고 그러고 빨리 나아가서 엄마 만나러 가야지 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니까 또 많이 비가 오고 해서 우울했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서 잘 구성해서 방송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다행히 저희 생방송 중에는 그렇게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생방송에서 기자 카톡음이 올린 건 아니구요. 저희가 생방송 나간 영상을 편집해서 온라인에 올리는 디지털뉴스부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담당자가 편집 과정에서 본인 컴퓨터의 음향들이 섞여 들어갔다고 합니다. 물론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겠습니다.

- 간호사 미담 이야기는 온라인 공간에서 미담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취재해서 디지털 콘텐츠로 만든 건데요. 해당 간호사가 인터뷰를 한사코 사양을 했다고 합니다. 미담

사례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 안호림 부위원장

- 7월 14일 현장잇슈(강남 그 물난리 뒤.. 다시 가보니 “이래도 버리실 거예요?”)의 해당 보도는 작년 침수로 한바탕 홍역을 앓은 강남역 일대를 기자가 발로 뛰며 심층 취재하는 르포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무슨 일 있었냐는 듯 태평스런 강남역 일대 수해 현장을 탐문하듯 느슨해진 안전 경각심을 짝 쪼여 매고 긴장감을 제고하는 시각적 효과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 첫째, 보도 시점입니다. 장마가 본격 시작하기 전인 6월 말이나 7월 초에 이슈를 환기하며 철저한 대비와 주의를 촉구하였으면 보다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둘째, 강남역 침수 여러 원인 중 하나인 빗물받이 막힘에 지나치게 주안점을 두어 하수 시설 한계, 방수문 미설치, 해이한 방재의식 등 다른 요인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 서울시청이나 강남구청 관계자의 인터뷰를 삽입하여 올해 수해 준 비상황을 점검했다면 기사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넷째, 빗물받이 주변이 원활한 배수를 저해하는 페트병, 담배꽂초 등 각종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어 아찔했습니다,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가 수해를 촉발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각별한 조심을 당부하는 즉, 시민의식을 일깨우는 내용이 삽입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불투수층’이란 용어를 자막 등으로 설명해 주었다면 뉴스를 이해하는데 훨씬 용이했을 것입니다. 뉴스의 마무리는 섬세한 디테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7월 12일 저녁 뉴스리뷰(폭우에 침수된 25억 신축아파트...주민 불안 가중)의 보도는 전형적인 자극적 제목으로 시청자 낚아채기 기법으로 보였습니다. 기사의 목적은 대형 건설사들이 고액 분양가에도 불가하고 부실공사를 남발해, 수해가 무력하게 무너지는 신축 아파트 현장을 고발하고자 한 것입니다. 배수펌프 추가 설치, 지하주차장 물막이 판 설치 등 침수 방지책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심도 있게 보도했습니다. 움푹 팬 물웅덩이, 맹렬한 기세로 달려드는 물살은 화면으로 보기에 아찔했습니다. 브랜드명에 현혹된 입주자들의 탄성이 귀에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수해 대비에 소홀한 아파트 공사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의미였다면 기사전달은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25억’이란 금액을 기재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강남 신축 아파트도 ‘별 볼일 없네’라는 심리적 위안과 정서적 안도감을 비강남권 거주자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대다수의 시청자에게 강남 아파트, 고가 신축아파트에 대한 불신을 주기 위해서인가?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자막 관련 오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7월1일 뉴스 20에서 새벽 중 남원의료원 화재 자막은, 새벽에 남원의료원 화재로 국어 어법에 맞게 표기해야 하구요. 7월 11일 뉴스리뷰에서 ‘신당역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 형량 늘어’에서 좌측 연월일이 2023년 9월 14일로 나왔습니다, 또 7월 13일 뉴스프라임에서 자막 오타가 났습니다. 전국 상급종합병원 20곳 참여... 곳곳서 진료차질 자막은 곳곳서로 표기했어야 합니다. 이렇듯 사소한 부분이라 생각되는 것이지만 좀 더 꼼꼼하게 신경 쓰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현장잇슈’에서 저희가 물난리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다 조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번에는 빗물받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습니다. 매년 장마철마다 이런 큰 수해가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에는 사전에 빗물받이 말고도 여러 가지 방재 대책에 대해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점검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 25억이란 대목이 사실 꼭 들어갈 필요는 없죠. 고가라고 해도 되고, 강남이라고 해도 되고, 유명 브랜드라고 해도 되는데요. 경제부의 얘기는 해당 아파트가 분양 당시 33평짜리가 30억 원이 넘고 해당 건설사가 엄청나게 홍보를 했었다는 거예요. 또 타매체도 그렇게 많이 가격을 썼다고 하구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구체적인 가격을 쓰지 않고도 강남의 고가 신축 아파트에도 이런 부실이 있구나 하는 문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겠습니다.

- 자막 오타 같은 실수가 자꾸 나오면, 결국 방송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야 조그마한 단순 실수일 뿐이다, 이게 무슨 실력의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어디 시청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실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주의를 당부하겠습니다.

▲ 손영준 위원장(서면제출)

-7월 폭우 피해에 대해 연합뉴스TV는 뉴스특보를 통해 현장 상황을 전달하고 전문가 대담을 통해 현황과 대책을 알리려 노력했다. 연합뉴스TV는 전국 취재망이 강점인 공영 언론이다. 이번 전국적인 재난 사태에서 방송의 공공성을 한층 제고했다고 생각한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수해 현장 그림은 보기 좋았다. 처참한 상황이었지만 오송 지하차도, 경북 예천, 충남 청양 상황을 드론을 통해 원근감 있게 보여준 영상은 참 좋았다고 생각한다. 청양군 청남면 수해 현장에서 물에 잠겨 갈 길을 모르는 소떼 영상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절로 들었다. 연합뉴스TV에서 드론을 이용한 영상 촬영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하다. 장비와 인력 현황은 어떤지 궁금하다. 앞으로 향후 활용 계획은 어떤지도 알고 싶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를 목격하고 119에 전화를 건 궁평 1리 전 이장을 전화 연결한 것도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전체적으로 연합뉴스TV가 폭우 취재를 위해 많이 노력한 점이 돋보였다고 생각한다. 침언하면 좀 더 체계적인 재난방송을 지향했으면 한다. 나무(개별 사건)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숲(전체)을 대비해 보여주었으면 한다. 쉽지 않겠지만,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난 방송이 이뤄졌으면 한다. 연합뉴스TV가 재난방송에 대비해 향후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 안호림 부위원장

손영준 위원님께서도 행사 때문에 부득이 참석치 못했는데 사전에 서면제출 하신 것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좀 전에 수해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재난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따로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드론 영상 드론 보유 현황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지만, 옆에 있는 시청자센터장이 영상취재부장을 1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승재 시청자센터장

말씀하신 대로 드론 영상은 평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을 취재해서 시청자들한테 보여드

릴 수 있는 특별한 장치입니다. 다만 드론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드론도 항공기처럼 인식을 하여 수방사 등에 허가를 받고 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난 상황에서는 특별히 허가절차를 면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그 상황에서도 군부대나 국가보안시설 이런 곳을 보이게 띄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드론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건 사이즈가 큰 것입니다. 이 드론은 GPS 연동이 되어 비행 금지 구역에서는 아예 프로펠러가 돌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MNG라고 하는 휴대용 전송기를 연결시켜 드론을 띄우면 실시간 라이브까지 할 수 있는 장치가 됩니다. 지방은 지금 13개 지역 본부 중 각 지역 권역별로 해서 드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오송도 충북에서 갖고 있는 드론이 갔습니다.

즉,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시청자들에게 전체적인 많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드론을 적극 활용 하려고 합니다. 다만 법적인 운용 절차를 지키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 안호림 부위원장

감사드립니다. 오늘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답변 얘기 하는 것도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위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그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끝)